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 3. 13.(월) 14:00	배포 일시	2023. 3. 13.(월)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상용 (044-203-4320)
		담당자	서기관 안진호 (044-203-4321)

산업부, 민관합동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회의 개최

-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품목 수출동향 점검 -

-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영향 확산 가능성에 대비, 민관합동 점검 체계 구축해 나가기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13.(월) 3월 업종별 수출 동향 및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 관련 수출영향 점검 등을 위해 민관합동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감소와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SVB 사태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금일 회의가 긴급하게 개최되었다.

【민관합동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 회의개요 】

◇ 일시 및 장소 : '23.3.13(월) 14:00 / 세종청사 12동 영상회의실(512호)

◇ 주요 참석자 : 산업부 1차관(주재), 12개 품목 담당관, KOTRA,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 목적 : ❶ 3월 업종별 수출동향 점검 및 수출 확대 방안 논의
❷ SVB 사태 영향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3월 10일 기준으로, 수출 감소(3.1~10, △16.2%)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도 전년비 소폭 증가(+2.7%)하면서, 여전히 무역적자(△50.0억불)를 보이고 있다.

* 3.1~10일 수출입동향 : (수출) 157.9억불(△16.2%) (수입) 207.9억불(+2.7%) (무역적자) △50.0억불

○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등의 수출단가도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 글로벌 경기 영향을 받는 철강제품과 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T제품 수출도 계속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아울러, SVB 사태와 관련된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향후 사태 추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산업부는 주요 업종별 협회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공관, 코트라 무역관 등 해외조직을 통해 해외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장영진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어려운 대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의 조기 반등을 위해서는 수출규모가 작더라도 유망품목들을 최대한 발굴하여 수출상품화하는 등 우리 수출의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하였으며

○ “한편, 미국 SVB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수출지원기관, 업계와 함께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수출기업 애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등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